"건설 수의계약 상한액 높여야"

도내지자체, 지방계약법의 범위는2억원이나 행자부 예규 적용 2천만원까지만 허용

도내 건설업체들이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종합건설공사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2억 원이고 전문은 1억 원 미만이지만 전북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2,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만원 이상은 공개 입찰 방식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공사 관련 수의계약 금액이 너무 적어 있으나 마나 한 법령이라는 반발이다.

일부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대한 불만도 빗발치고 있다.

2,000만원 이하 농로나 소도로, 마을 포장도로공사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제외하면 해당 공사에 대한 마진율은 제로라는 주장이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2,000만원 수의계약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낮춰 원성이 자자하다.

전주시는 공사 계약 청탁 등 각종 부조리와 말썽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의계약 금액을 낮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특혜의혹을 사전 차단한다는 의도에 공감하지만 수의계약 상한액을 국가나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수준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도 한 개의 공사로 발주해야 될 공사를 2,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발주하는 경우도 많아 비용증가와 현장관리에 어려움도 커진다는 주장이다.

전주시 모 건설업체 A씨는 "수의계약을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대해서 참여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약간의 방식을 바꿔 문제점을 해소할 수도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광영기자

시원한 여름을 위한 린넨 의류 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무더위를 식혀줄 린넨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동군산 서희스타힐스 995세대 공급

군산에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중견 건설업체인 서희건설은 군산시 조촌동에 995세대 규모의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시공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동군산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사진)는 중소형 규모의 전용면적 59㎡A형 157세대, 59㎡B형 109세대, 75㎡A형 62세대, 75㎡B형 326세대, 84㎡A형 319세대, 84㎡B형 22세대로 구성되며 3.3㎡당 최저 500만원대 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자산신탁을 통해 자금관리가 되고있어 분담금 수납과 사업비 진행 등이 투명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는 전평형에 채광 및 공간활용도가 높은 4Bay 구조 및 알파룸, 대형팬트리 수납특화, 뛰어난 공간배를 설계를 적용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설계로 전면 폭을 확대해 일조량 및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했다.

실용적인 내부평면과 지상 공원화 조경설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으며,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채광과 환기는 물론 개방감까지 높여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현장은 군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각광받는 동군산의 도심에 위치해 군산시청, 법원, 경찰서 등 관공서와 월명종합경기장 고속버스터미널, 동군산병원이 가깝고 5분 거리의 군산I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수월하다. /군산=문정곤 기자

덕산엔지니어링 · 새눈 제품 성능 인증

로터리 제진기 등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1일 덕산엔지니어링㈜과 ㈜새눈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인증을 발급했다.

덕산엔지니어링㈜의 '하부 더블 스프로켓 로터리 제진기', ㈜새눈의 '개방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 성능 인증서(EPC)를 획득했다.

덕산엔지니어링㈜은 정읍에 소재한 수처리기계를 제작 전문업체다.

성능인증 제품은 배수펌프장 배수로에 설치, 협잡물 및 쓰레기를 제거해 펌프, 임펠러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하부더블 스프로켓 로터제진기이다.

㈜새눈은 완주에 위치해 있고 주차관제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성능인증 제품은 일반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과 문제차량을 검색할 수 있는 개방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이다.

특히 CCTV통합관제센터 스트리밍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카메라영상을 조회하고 다채널의 차량번호를 동시에 인식하여 불법주정차단속, 문제차량검색, 도로방범시스템이 가능한 제품이다.

정원탁 청장은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개발에 힘쓰고 성능인증 획득에 도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광영기자

소비자물가상승률, 4개월만에 0%대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개월 만에 0%대로 떨어졌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뒤 2월(+1.3%)과 3월(+1.0%), 4월(+1.0%)에는 1%대를 유지했으나 넉 달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공산품·에너지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다. 상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은 가격은 1.3% 상승했지만 4월(+5.5%)에 비해 상승률은 둔화됐다. 쇠고기(국산, +19.0%), 마늘(+57.2), 배추(+43.4%), 무(+59.3%), 게(+36.9%), 갈치(+12.8%), 양배추(+44.2%) 등은 가격이 올랐고, 쌀(-9.2%), 돼지고기(-6.0%), 달걀(-14.1%), 참외(-17.7%), 딸기(-17.0%), 닭고기(-10.4%) 등은 떨어졌다.

공업제품(-0.9%)과 전기·수도·가스(-6.4%) 가격은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세가 유지됐다.

서비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집세는 전세(+3.7%)와 월세(+0.3%)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6%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5월 물가동향과 관련, "농축수산물 가격은 수급안정 노력 등에 따라 4월 대비 상승세가 둔화됐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과 가스요금 인하 효과로 체감 지표인 신선식품지수, 생활물가지수 상승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안진수 기자

정읍첨단산업단지내 행복주택 건설사업 본격 추진

LH 전북본부, 600호 건설 예정

LH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김경기)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동 산업단지내 안정적 주거지 확보를 통한 투자유치 촉진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첨단산업단지내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첨단산업단지는 첨단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및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대형 국책연구원이 이미 입주해 있고, 기업주계약 및 입주확정 또는 투자협약 기업이 줄을 잇고 있는 등 인근 내장산 리조트와 연결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구이다.

LH 전북지역본부는 이곳에 정부의 서민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핵심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되게 된다.

현재 해당부지에 대한 현황조사, 공급계층별 수요조사·분석을 완료했다.

2017년 착공예정으로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승인 완료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LH 전북본부는 공공주택부지 1만 4천㎡에 전용면적 45㎡ 이하 600호를 건설해 산단근로자 및 젊은계층 등에 주변시세의 60~80%의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LH 전북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복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LH간 다양한 협업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행복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LH에서는 현재 도내에서 익산인화 612호를 건설 중에 있으며, 완주삼봉, 군산산업세권 등에도 945호의 행복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신광영기자

전북개발공사 기술자문 위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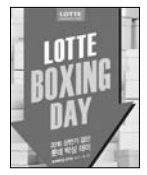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1일 제4대 기술자문 위원 60명을 재위촉 했다.

이날 위촉된 기술자문위원들은 토목·건축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학교수, 공사·공단 임직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술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안전사고 방지 및 유지관리 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전주 롯데백화점 '박싱 데이' 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오는 6일까지 상반기 결산 테마로 '롯데 박싱 데이(LOTTE BOXING DAY)'를 진행한다.

'박싱데이'는 영국에서 유래됐으며, 크리스마스 이후 연중 쌓인 재고를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는 유럽 최대의 쇼핑 행사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이번 '롯데 박싱데이'에 여름 물량을 대폭 강화하고, 지난 행사 때 인기 있었던 제품을 포함해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와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먼저 롯데백화점 전주점 6층 이벤트홀에서는 6월2일 단하루! 10시30분부터 'Lucky Box Day'를 진행한다.

수영복, T셔츠, 넥타이, 아동/유아복 등 다양한 여름상품을 1만원 ~ 2만원 균일가로 상품 소진 시까지 판매한다. /신광영기자

단풍미인쇼핑몰 농산물 예약 판매

정읍시가 직영하고 있는 단풍미인쇼핑몰이 6월을 맞아 이달 대표 농산물의 예약 판매한다.

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정읍 대표 농산물인 베리류인 오디와 복분자, 블루베리 그리고 단풍미인 씨 없는 흑피수박을 예약판매 한다."고 밝혔다.

베리류는 5월 25일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6월 10일까지 주문받을 예정으로 농가별로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예약판매하는 단풍미인 수박은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에 출하되는 단풍미인 씨없는 흑피수박이다. 일반수박보다 당도가 높고 수박표피가 흑색이며 과육은 붉은색으로 검은 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예약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8kg 이상인 상품을 선별 수확하여 6월 2일과 6월 15일 2회에 걸쳐 일괄배송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